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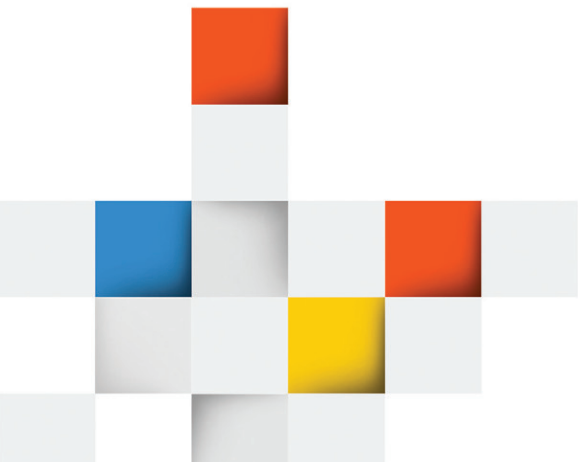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15

<http://sri.kostat.go.kr>

2015



통계청

통계개발원



미혼율의 증가와 사회적 의미

한경혜 (서울대학교)

- 미혼율은 1995-2010년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0년 기준 20-30대의 미혼율은 52.5%로 절반 이상이 미혼 상태이다.
- 25-29세의 미혼율이 특히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30-34세의 미혼율도 1995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 20대의 미혼율 증가는 여성이 더 큰 반면, 30대의 미혼율 증가는 남성이 더 크다.
- 고졸의 미혼율이 가장 높고 이어 대졸 이상, 중졸 이하의 순이다. 대졸 이상은 1995년 이래 미혼율이 가장 완만하게 증가한 집단이고, 중졸 이하의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집단이다.
- 교육수준별 미혼율 변화 양상은 남녀 간에 비슷하게 나타난다. 남녀 모두 고졸 이하의 미혼율이 대졸 이상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
- 직업군별로 미혼율은 무직자, 서비스·판매직, 전문·관리직, 사무직, 기능·노무직 종사자의 순으로 높다. 사무직은 미혼율이 감소한 유일한 직업군이다.
- 남성은 결혼을 '해야 하는' 필수 사안으로 여기는 경향이 더 강한 반면, 여성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 사안으로 여기는 경향이 더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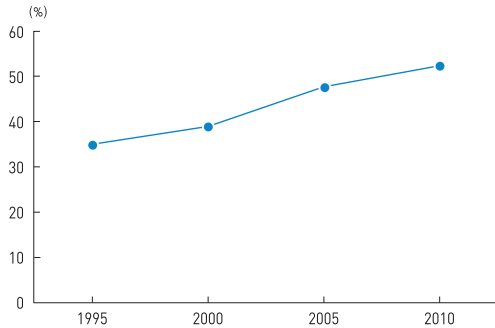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 미혼율의 증가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사회적, 학문적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95-2010년 기간 동안 20대와

30대의 미혼율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미혼율 증가를 누가 주도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른 미혼율의 변화를 살펴보고, 미혼율 증가의 원인과 과정에 남녀 간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미혼율의 증가가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미혼율의 변화

지난 15년간 한국인의 평균 초혼연령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실업과 취업난이 가중되어 결혼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최근 초혼연령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초혼연령의 상승과 만혼화는 미혼율의 증가로 나타난다. 특히 20-30대 연령층의 미혼율 증가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대의 미혼율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들의 미혼율은 2010년 52.5%로 1995년 대비 17.4%p 증가하였다(그림 II-13). 20-30대의 절반 이상이 미혼 상태인 것이다.

[그림 II-13] 20-30대 연령층의 미혼율, 199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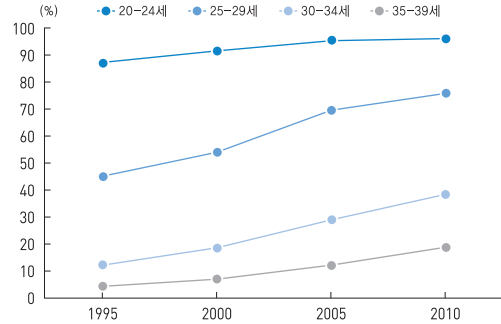


주: 1) 미혼율=(해당 집단 미혼자수÷해당 집단 인구)×1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각 연도.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25-29세의 미혼율은 2010년 기준 76.0%에 이른다. 4명 중 3명이 미혼인 셈이다. 1995년에는 25-29세의 45.2%만이 미혼이었음을 고려할 때, 지난 15년 동안 20대 후반의 미혼율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0-34세의 미혼율은 2010년 38.5%로 1995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35-39세의 미혼율은 1995년 4.6%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19.1%로 증가하여 30대 후반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인구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14).

미혼율의 증가 추세가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자. 2010년 기준 20대 남성과 여성의 미혼율은 각각 90.2%와 79.2%로 남성의 미혼율이 11%p 더 높다. 반면 미혼율의 증가 폭은 여성이 더 큰데, 1995년과 2010년 사이 20대 남성과 여성의 미혼율은 각각 13.8%p와 24.6%p 증가하였다. 이와 달리 30대의 미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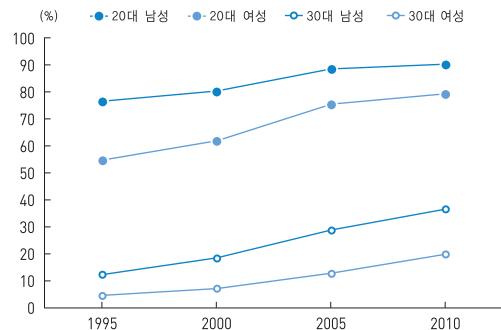
[그림 II-14] 20-30대 연령층의 연령집단별 미혼율, 1995-2010



주: 1) 미혼율=(해당 집단 미혼자수÷해당 집단 인구)×1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각 연도.

율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30대 남성의 미혼율은 2010년 기준 36.7%로 1995년의 12.4%에 비해 24.3%p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미혼율은 15.2%p 상승하는데 그쳤다. 30대 여성의 미혼율은 2010년 기준 19.9%로 여성은 30대에 대부분 결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I-15).

[그림 II-15] 20-30대 연령층의 성 및 연령집단별 미혼율, 1995-2010



주: 1) 미혼율=(해당 집단 미혼자수÷해당 집단 인구)×1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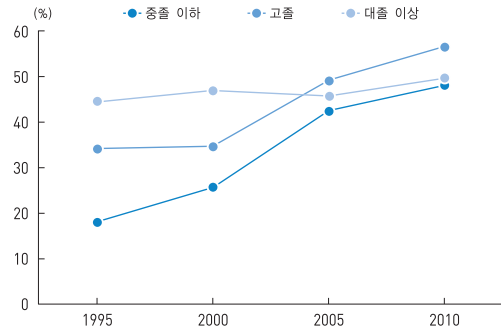
교육수준별 미혼율의 비교와 변화

교육수준과 미혼율 증가의 관계는 복잡하다.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기간이 늘어나면서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있고 교육수준은 결혼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는 설명도 있다.

교육수준별 미혼율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고졸의 미혼율이 56.6%로 가장 높다. 이들의 미혼율은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약간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10년 동안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대졸 이상(49.7%)이 높지만 이들의 미혼율은 1995년(44.5%) 대비 5.2%p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졸 이상은 지난 15년 동안 미혼율이 가장 완만하게 증가한 집단이다. 반면 중졸 이하의 미혼율은 2010년 기준 48.1%로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낮지만, 이들은 1995년 이래 미혼율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집단이다. 중졸 이하의 미혼율 증가 폭은 1995년(18.2%) 대비 무려 29.9%p에 이른다(그림 II-16).

결혼연령과 교육수준의 관련성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5년간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별 미혼율 변화 양상은 남녀 간에 비슷하게 나타난다. 1995-2010년 기간 동안 고졸 이하의 학력은 남녀 모두의 결혼에 점차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남성과 여성, 고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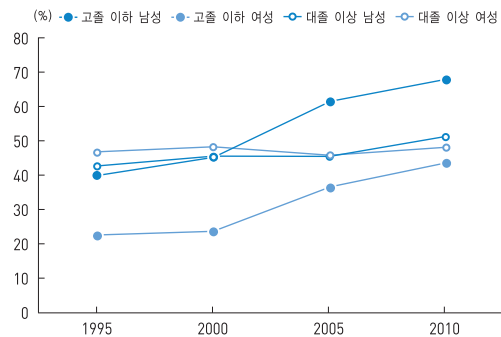
[그림 II-16] 20-30대 연령층의 교육수준별 미혼율, 1995-2010



주: 1) 미혼율=(해당 집단 미혼자수÷해당 집단 인구)×1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각 연도.

하와 대졸 이상으로 교차시켜서 보면(그림 II-17), 2010년 기준 고졸 이하 남성(68.0%)의 미혼율은 대졸 이상 남성(51.4%)보다 16.6%p 높다. 1995-2010년 기간의 미혼율 변화를 살펴봐도 대졸 이상 남성의 미혼율은 8.5%p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고졸 이하 남성의 미혼율은 27.7%p나 상승하였다. 지난 15년간 고졸 이하

[그림 II-17] 20-30대 연령층의 성 및 교육수준별 미혼율, 1995-2010



주: 1) 미혼율=(해당 집단 미혼자수÷해당 집단 인구)×1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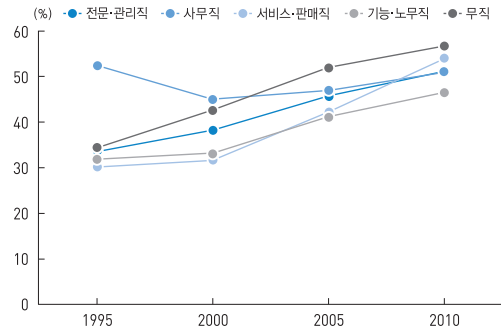
남성 미혼율의 급격한 증가가 교육수준에 따른 남성 미혼율의 차이를 확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미혼율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고졸 이하 여성의 미혼율은 2010년 기준 43.7%로 대졸 이상 여성보다 4.5%p 낮지만 1995년과 2010년 사이에 약 2배 증가하여 같은 기간 1.5%p의 증가에 그친 대졸 이상 여성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직업군별 미혼율의 비교와 변화

다음으로 직업군별 미혼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자. 2010년 기준 미혼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무직자(56.9%)이고 그 다음 서비스·판매직, 전문·관리직, 사무직, 기능·노무직의 순이다. 지난 15년간 유일하게 미혼율이 감소한 직업군은 사무직으로 1995년 52.5%에서 2010년 51.0%로 줄어들었다. 이들의 미혼율은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서비스·판매직과 무직자의 미혼율은 각각 23.9%p와 22.4%p 증가하여 매우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두 집단에 비하면 전문·관리직과 기능·노무직은 미혼율의 증가가 완만한 편인데, 이들은 1995년 이후 각각 17.6%p와 14.7%p 증가하였다(그림 II-18).

직업군별 미혼율과 그 변화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직업집단 간 미혼율의 차

[그림 II-18] 20~30대 연령층의 직업별 미혼율, 199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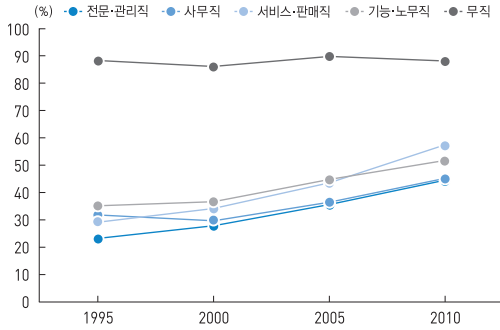
주: 1) 미혼율=(해당 집단 미혼자수÷해당 집단 인구)×1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각 연도.

이는 특히 남성에서 두드러진다. 무직 남성의 미혼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서 2010년 88.3%에 달하는데, 그 추이는 지난 15년 동안 큰 변화가 없다. 남성 미혼율은 무직자에 이어 서비스·판매직, 기능·노무직, 사무직, 전문·관리직의 순으로 높다. 무직자 외 모든 직업군의 남성 미혼율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증가하였다. 특기할 만한 점은 직업지위가 낮은 기능·노무직과 서비스·판매직 남성의 미혼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동시에 전문·관리직 남성의 미혼율도 가파르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1995-2010년 기간 동안 기능·노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의 미혼율은 각각 27.7%p와 16.4%p 증가하였고, 전문·관리직의 미혼율은 21.2%p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미혼율이 가장 완만하게 증가한 직업군은 13.2%p에 그친 사무직이다(그림 II-19).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지위가 낮을수록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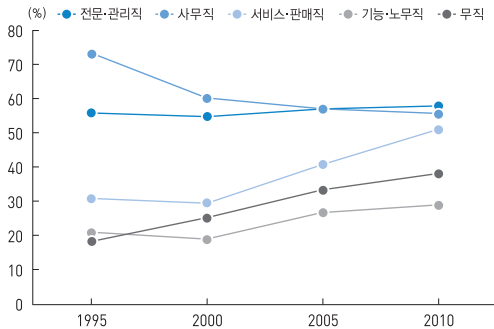
[그림 II-19] 20~30대 남성의 직업별 미혼율, 1995~2010



주: 1) 미혼율=(해당 집단 미혼자수÷해당 집단 인구)×1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각 연도.

혼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여성 미혼율은 2010년 기준으로 전문·관리직(58.0%)과 사무직(55.7%)이 높다. 그러나 변화의 추이를 보면 이 두 직업군 여성의 미혼율은 1995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 특히 사무직 여성의 미혼율은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큰 폭으로 감소한 후 지속적인

[그림 II-20] 20~30대 여성의 직업별 미혼율, 1995~2010



주: 1) 미혼율=(해당 집단 미혼자수÷해당 집단 인구)×1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각 연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15년간 17.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관리직 여성의 미혼율도 매우 소폭으로 증가했을 뿐이다. 반면 서비스·판매직, 기능·노무직, 무직 여성의 미혼율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서비스·판매직과 무직 여성의 미혼율은 각각 20.1%p와 19.9%p 증가하였고, 이들 보다는 작지만 기능·노무직 여성의 미혼율도 8.1%p 증가하였다(그림 II-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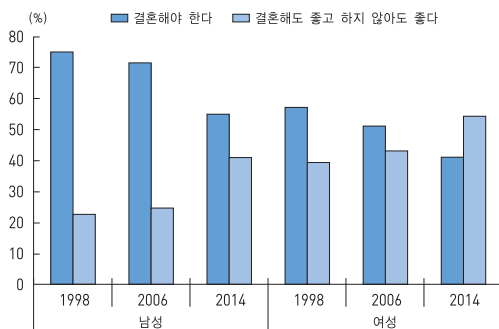
결혼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변화

미혼율의 증가는 일정 부분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동시에 그것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를 야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범이나 결혼 적령기 개념이 약화되고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 사안으로 여겨지면서 젊은 층으로 올수록 결혼의 기회비용이 증가한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결혼 규범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4년 현재 47.7%로 나타난다. 이는 1998년의 31.4%에 비해 16.3%p 증가한 것이다. 2014년에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비율(47.7%)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48.2%)과 거의 비슷해졌다. 결혼

에 대한 태도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통적 결혼 규범은 남녀 공히 2006년 이후 급격히 약화되어 2014년 현재 남성의 55.1%와 여성의 41.2%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태도는 남녀 간 차이가 여전히 관찰되는데, 남성의 경우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율(55.1%)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비율(41.1%)보다 높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비율(54.4%)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율(41.2%)보다 오히려 더 높다(그림 II-21). 남성은 결혼을 필수 사안으로 여기는 경향이 더 강하지만 여성은 결혼을 선택 사안으로 여기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이다.

[그림 II-21] 20~30대 연령층의 성별 결혼 당위성에 대한 태도, 1998-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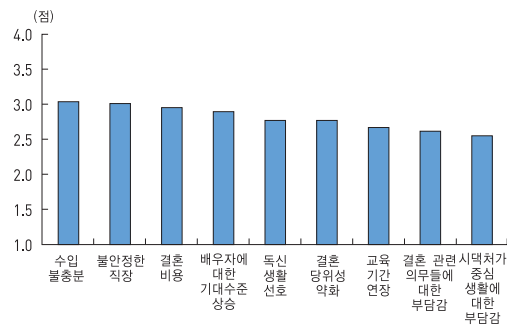
주: 1)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등 5점 척도로 구성되었음.

2) 통계치는 해당 범주에 대한 응답률임. '결혼해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30대의 높은 미혼율, 즉 결혼을 미루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경제적 요인이 미혼 증가의 근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2012년 자료에 의하면, 기혼자들이 생각하는 만혼의 원인은 수입의 불충분, 불안정한 직장, 결혼비용 등 대부분 경제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에는 만혼의 원인으로 불안정한 직장,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의 상승, 독신생활의 선호 등 경제적 요인과 결혼 가치관의 변화가 함께 꼽혔다. 최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결혼을 늦추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22] 기혼자의 만혼 원인에 대한 인식, 2012



주: 1) 전국 만 15~64세 기혼여성과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과거에 비해 요즘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의 각 이유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해당 이유별로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등 4점 척도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해당 이유에 대해 '전혀 찬성하지 않음'부터 '전적으로 찬성'까지 1~4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2012.